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같은 듯 다른 주말 드라마



VS

절절한 '명품'

SBS '애인 있어요'

유치한 '막장'

MBC '내 딸 금사월'

출생의 비밀·기억상실·불륜 등 공통분모

시청률 '금사월' 27%... '애인'은 7% 대

세상만사 한결 차이다. 시합에 불고 떨어지는 함격 커트라인도 한결 차이고, 출근할 때 지각을 결정하는 지하철 시간도 한결 차이다. 근대 그 한결이 살다 보면 상상 이상의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않게 경험한다. 현재 주말 안방극장에서 맞붙는 두 편의 드라마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평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누리꾼들로부터 나온다. 두 드라마에 대한 또 다른 평가지표인 시청률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따른다.

'유치한 막장' MBC TV '내 딸 금사월'의 시청률은 26~27%까지 오른다. 반면 '절절한 명품 드라마' SBS TV '애인 있어요'의 시청률은 7%대다. 요즘 시청률은 50대 이상 시청층이 좌우한다. 어느 드라마가 '웁다'라고 할 수 없다. 두 드라마 모두 대중을 즐겁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순옥 표 코미디와 할리웃 로맨스 '내 딸 금사월'은 화끈하고 단순하다. 누구나 쉽게 규칙을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게임 같다. 한화만 봐도 드라마 전체 내용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맞출 때 놓쳐도 흐름을 따라가는 데 별 지장이 없다. 이야기는 늘 같은 구도이기 때문이다.

오해상(이세영 분)과 강만후(손창민)의 끝도 없는 악행에 복수의 화신 신예(전진화)가 부지런히 추적하는 구도다. 여기에 순진무구 씩씩한 오목이 금사월(백진희)과 그를 향한 강찬빈(윤현민)의 순애보, 악녀 오해상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며 사랑을 주는 주세훈(도상우)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사고가 반복되며 전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웁다! 장보리'로 최고 시청률 37.3%를 기록했던 김순옥 작가는 '내 딸 금사월'을 통해 자기복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뚜렷하고 흔들림없는 집필관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상사에 지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소비하면서 웃을 수도 있는, 선악이 명확한 선명한 이야기를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개그맨 유재석을 출연시키면서 '내 딸 금사월'은 처절

한 복수극에 유치한만큼 개그를 섞은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확고히 했다. 마치 스스로를 패러디한 'SNL코리아'를 보듯 했다.

◇배유미 표 고뇌와 절절한 사랑 '애인 있어요'는 고뇌하고 방황하느라 복잡하다. 김현주가 무려 1인3역(혹자는 중국인 행세까지 1인4역이라고 주장)을 해내고 있고,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쌍둥이가 활개치고 다니는 탓에 주변 인물들이 극심한 혼돈에 빠지는 '애인 있어요'의 이야기는 따라가기 쉽다.

특히 '드라마 이해 머리'가 떨어지는 남성들에게는 프리미엄 12층계로 이 드라마를 결방하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시청률 7%짜리 이 드라마가 야구 계계를 최근 두 차례 결방되자 누리꾼들은 입에 거품을 물었다. SBS를 성토하는 '악플'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배유미 작가에게 다시는 SBS와 일하지 말라는 당부도 들었다.

'태양은 가득히', '로망스', '위풍당당 그녀' 등 배유미 작가도 그간 막장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뇌하고 방황하는 주인공과 그가 펼치는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깊이를 추구했고, 그를 통해 막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억을 잃은 도해강(김현주)이 흘리는 눈물은 영동하고 맑고 애잔하고, '불륜남'이지만 다시 전처를 사랑하게 된 최진언(지진희)의 회한 섞인 순애보에 여성 시청자들이 쓰러지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린 후배와 바람 난 최진언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해 따귀 맞기 딱 좋지만, 배 작가는 인물 하나하나에 개성성을 불어넣는 작업을 통해 최진언의 방황도 용서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람성 쌍둥이 같은 두 드라마=두 작품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주인공의 1인 다역이다. '내 딸 금사월'의 해더 신을 보고 강만후는 "도플갱어야? 영락없는 집사람인데..."라며 의심한다. '애인 있어요'에서는 도해강과 독고용기, 독고용기가 돼 버린 도해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버릴 지경이다.

분노지수 상승시키는 시월드와 피 회복을 안 섞인 아이들을 돌보는 여주인공의 모습도 비슷하다. 박원숙과 나영희가 머리를 구박하는 알마운 시어머니 역을 맡고, 금사월과 기억없는 독고용기가 얼굴에 피투성이 아닌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하게 되는 이야기도 닮았다.

금사월과 독고용기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고, 친엄마가 어린 시절 그들을 버렸기에 지금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 사랑과 욕망을 지키기 위한 오해상과 강설리(박한별)의 거짓말 행진이 이어지는 것도 비슷하다.

EBS1

Table with 3 columns listing EBS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3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음 10월 15일 丙午)

Table with 3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Description, and Fortune number.

PSY 7TH ALBUM '칠집싸이다' promotional graphic with a cartoon character.

"나팔바지·대디, 터블 타이틀곡" 유건형·타블로·자이언티와 작업

다음 달 1일 7집 발표를 예고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새 앨범의 제목과 수록곡 일부를 공개했다. 싸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5일 0시 공식블로그를 통해 '칠집싸이다'라는 글자가 쓰인 포스터를 게재했다. 싸이는 포스터 공개에 앞서 지난 24일 밤 11시 인터넷 방송인 네이버 V앱에서 '싸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생방송을 하고 팬과 소통했다. 싸이는 방송에서 '칠집싸이다' 수록곡인 '아이 리멤버 유'(I Remember You) 일부를 최초 공개했다. 싸이는 이 곡을 "6집 수록곡인 '어땠을까'의 뒤를 이을 감성 트랙"이라고 소개하며

"1980년대 신스팝 느낌으로 편곡해 옛날을 추억하며 어린함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노래는 '강남스타일'을 작곡한 유건형과 공동 작곡을, 타블로와 공동 작사를 했으며 자이언티가 피쳐링을 했다고 설명했다. '싸이 리틀 텔레비전'은 24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11시에 진행된다. 싸이는 또 '칠집싸이다'의 터블 타이틀곡을 소개하며 '나팔바지'는 국내 팬을 위한 '내수용'이고, '대디'(DAD-DY)는 세계 팬을 겨냥한 '수출용'이라고 비유했다. 싸이는 25일 밤 11시에 진행되는 두 번째 개인 방송에서 7집에 수록될 다른 곡을 소개할 예정이다. 싸이는 다음 달 1일 '칠집싸이다'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2일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엠베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에 참여해 공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